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교회의 목적 성경: 에베소서 1장 21-23절 (Tag:)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1:21-23)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이 고민은 현실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이런 시대에 문화선교라는 사명감이 가득한 교회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첫 번째 임직식을 거행하는 날이다.

문화선교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교회를 통한 커피문화, 카페문화를 통해서 교회운동을 하고 있다. 일터교회를 중심한 새로운 교회운동을 시작한 선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일터가 곧 선교의 장, 또는 선교의 접촉점이 되고 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생활수단이나 영리의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선교에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하고 신선하며 건강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임직에 임하는 분들도 이런 교회의 설립정신에 헌신하고자 함께 교회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쪼록 더 건강하고 현실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주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해마지 않는다.

사실 일터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자들도 많다. 장로교 운동은 처음부터 일터를 천직으로 여기며 일터에 경건한 삶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의 한국교회의 위기도 어쩌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너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스스로 멀어져버렸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었지 않나 생각해본다. 과거 한국교회가 계몽운동의 주체가 되어 사회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분열하여 교리논쟁에 빠지면서 힘의 중심점을 잃기 시작했고, 전체 사회의 유익이기 보다는 교회 부흥을 위한 윤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마치 복 받을 경건으로 착각하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졌다. 결국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기복적이며 무식한 집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상식이 아니라 은혜로 일들을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비리까지도 덮어주면서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희생으로 삼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건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누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소비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한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팔지 않으며, 땀 흘려 일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최고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또 경제적인 유익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오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이다.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23절 말씀이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이다.

부디 문화선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꾀꾀하게 향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임직자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목사님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시길 바란다. 마침내 온 교우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